차 례

제 1 과
당을 창건하시여

일찌기 14살 어리신 나이에 광복의 천리길에 오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20년세월 간고한 투쟁을 벌려 일제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고 조국에 돌아오시였습니다.

그때부터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리운 고향의 할아버님, 할머님을 찾아뵙는 일도 뒤로 미루시며 새 조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몸을 잠그시였습니다.

해방된 조국땅에 인민이 주인이 되여 잘사는 새 조국을 일떠세우자면 풀어야 할 문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였고 해야 할 일도 많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 많은 일가운데서도 먼저 당을 창건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지 않고서는 인민대중을 묶어세워 건국사업에 적극 조직동원할수 없으며 우리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없습니다.》

당을 하루빨리 내와야 인민들을 새 조국 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었고 광범한 대중을 혁명의 편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민을 이끌어나갈 당을 창건하는 일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중요한 일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당을 뭇기 위한 준비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34(1945)년 9월 어느날 항일혁명투사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였습니다.

투사들의 옷은 싸움의 나날에 입었던 그대로였고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조국에 돌아온 기쁨과 함께 오랜 싸움에서 쌓인 피로가 그대

로 어려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들을 얼마동안만이라도 쉬우고싶으시였습니다.

그러나 피로써 찾은 조국이 더없이 귀중하기에 그들에게 당창건준비사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중요한 과업을 주시여 나라의 곳곳으로 떠나보내시였습니다.

여러 지방에 나간 항일혁명투사들은 공장과 광산, 농촌과 어촌들에 당세포를 내오고 그 조직을 넓혀나갔습니다. 그들은 종파분자들과 나쁜 놈들의 책동을 저지시키면서 인민들을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두리에 뭉치게 하고 새 조국 건설에로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몸소 평안남도당사업을 비롯한 여러 당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시면서 당창건준비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은 빨리 다그쳐졌습니다.

그러나 종파분자들은 당창건을 방해하여 미쳐날뛰였습니다.

당창건을 위한 예비회의가 열렸을 때였습니다.

회의에서 종파분자들은《서울중앙》이라는것을 내걸고 북반부에 당중앙조직위원회를 내오는것을 한사코 반대하여나섰습니다. 그러자 회의참가자들은 종파분자들의 분렬책동을 되게 비판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대표들이 자기의 생각을 다 이야기할수 있게 하신 후에야 자리에서 일어서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북과 남에 조성된 판이한 정세를 분석하시면서 왜 북반부에 당중앙조직위원회를 내와야 하는가를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러시면서 《서울중앙》을 떠드는것은 결국 지방할거주의적인 분렬을 꾀하는것이라고 종파분자들의 검은 속심을 낱낱이 발가놓으시였습니다. 종파분자들은 더는 아무 소리도 못하였습니다.

회의를 파탄시키려던 종파분자들의 잔꾀는 산산이 부서져나갔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시여 주체34(1945)년 10월 10일 평양에서 당창립대회를 여시고 우리 당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습니다.

당 창 건 사 적 관

그리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이 창건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새 조국 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습니다.

제 2 과
3천만의 환호속에

해방을 맞이한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만나뵈올 뜻깊은 시각을 손꼽아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여앉기만 하면 경애하는 대원수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만나뵙고싶은 우리 인민들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모이고 합쳐 한번은 《**김일성**장군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거느리시고 평양으로 입성하신다.》는 소문이 평양시안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시민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맞이하려고 앞을 다투어 역전광장으로 밀려갔습니다. 외성거리와 역전광장은 붉은기를 든 사람들로 물결쳤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평양에서만 있은것이 아니였습니다.

남조선에서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서울에 오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수십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우리의 령도자 **김일성**장군 만세!》라고 쓴 프랑카드와 붉은 기발을 들고 서울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하루빨리 만나뵙고싶어하는 우리 인민들의 소망은 이렇듯 간절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의 이 간절한 소망은 조국이 해방된지 두달이 지나서야 이루어지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당을 창건하는 대회를 끝낸 다음에야 비로소 평양시환영군중대회에 나가기로 하시였던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인민들에게 알려주려고 비행기가 삐라를 뿌렸습니다.

《**김일성**장군 래일 모란봉공설운동장에서 평양시민들과 상봉!》

이 기쁜 소식을 받아안은 인민들은 끓어오르는 감격과 흥분을 걷잡지 못하여 《**김일성**장군 만세!》를 목청껏 부르며 서로 붙안고 돌아갔습니다.

온 나라의 거리와 마을들은 끝없는 환희와 기쁨으로 하여 온밤 잠들줄 몰랐습니다.

마침내 온 민족의 눈길이 쏠린 평양에 새날이 밝았습니다.

10월 1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군중대회가 성대히 열리였습니다.

군중대회장은 이른아침부터 사람들의 물결로 설레였습니다.

평양시민들과 함께 강선의 로동계급들이 모여들었고 멀리 신의주와 함흥, 청진과 해주 지어 서울과 개성에서 38° 선을 넘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회장은 여러가지 기발과 꽃다발, 프랑카드로 한벌 덮이였습니다.

오후 1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해빛같이 밝은 웃음을 담으시고 주석단에 나오시였습니다.

순간 대회장은 하늘땅을 뒤흔드는 폭풍같은 환호와 꽃물결로 설레였습니다.

《**김일성**장군 만세!》, 《만세!》의 환호소리는 푸른 하늘에 끝없이 울려퍼졌습니다.

나라를 찾아주시고 보람찬 새 생활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만나뵙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각이 온것입니다.

진정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뵈옵는 인민들의 감격과 기쁨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군중대회가 시작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대회에서 새 조선이 나아갈 길을 밝히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며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전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은 우리 인민들의 가슴을 끝없는 감격과 희망으로 부풀게 하였습니다.

지난날 천대와 멸시속에서만 살아온 인민들은 새 조국을 일떠세우는 한길로 불러주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믿음에 찬 말씀에 목이 메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연설을 마치시고 주석단을 내리시였으나 군중들은 헤여질줄 모르고 만세의 환호를 높이높이 울렸습니다.

이날 조선중앙방송은 첫 전파를 날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연설을 온 세상에 전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연설을 받아안은 전체 인민들은 새 조국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보장해주며 남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

건국사업—나라를 일떠세우는 일.

제 3 과
20년만에 찾으신 고향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가 있은 그날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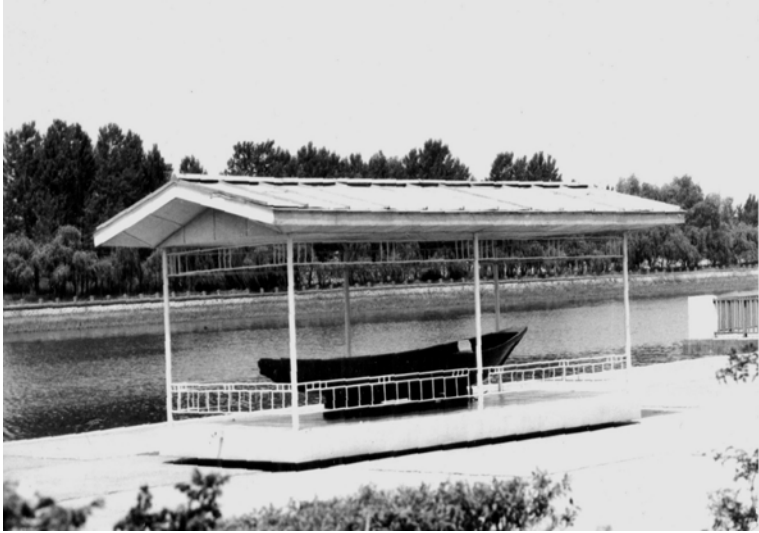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인민들에게 조국개선의 첫 인사를 하신 이날에야 비로소 고향 만경대를 찾아 길을 떠나시였습니다.

20년만에 돌아오시는 고향길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모시고 큰길로 달리던 승용차는 어느덧 만경대로 가는 길로 꺾어들었습니다.

당창립대회가 열리기 전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강선으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길에 잠간 차를 세우고 내리시여 20년 세월 한시도 잊으신적 없는 고향을 바라보시다가 나라일을 먼저 생

각하시며 그냥 지나가시였던 뜻깊은 만경대갈림길이였습니다.

갈림길을 지난 승용차는 추자리를 돌아 순화강가에 이르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순화강을 건느실 때 리용하신 나루배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여기서 나루배를 타고 강을 건느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나루터로부터 만경대고향집까지 걸어가시였습니다.

만경대인민들이 모두 떨쳐나와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할아버님께서는 버선발바람으로 마당에 달려나와 대원수님을 얼싸안으시면서 《우리 장손이 돌아오는구나. …어디 보자! 어디…》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였습니다.

할머님께서도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품에 안기시며 《너를 보니 한생에 쌓인 시름이 다 풀리는구나! …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어데다 두고 이렇게 혼자 왔느냐, … 같이 오면 못 쓴다더냐!》 하시면서 울음을 터뜨리시였습니다.

스무해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광복의 천리길에 오르시면서 헤여지시였던 할아버님, 할머님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뜨거운 마음으로 할아버님, 할머님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시였습니다.

사연많은 눈물과 기쁨이 한데 어울린 뜻깊은 상봉이였습니다.

이윽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할아버님, 할머님께 가지고오신 술을 부어드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 서른살이 넘도록 효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할아버님께서는 《그런 말은 하지도 말아라. 네 아버지가 하다가 못한 조선독립을 네가 해냈으면 그게 효도지 그보다 큰 효도가 어디 있겠느냐. 나라와 백성을 잘 돌보면 그게 효도니라.》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고향집에서는 20년동안 겪고겪으신 가지가지의 일들로 하여 이야기가 그칠줄 몰랐습니다.

이야기에 이어 고향집은 노래와 춤으로 흥성거렸습니다. 온 만경대에 춤과 웃음이 흘러넘쳤습니다.

이렇게 상봉의 감격속에 만경대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날 할아버님, 할머님의 곁에서 하루밤을 지내시였습니다.

그때 고향집에서는 집을 수리하던중이였습니다.

할아버님께서는 여러가지로 생각하시던 끝에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이웃집에서 쉬시게 하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할아버님께 우리는 산에서 호강을 하다가 온게 아닙니다, 풍찬로숙을 하다가 왔습니다, 하늘을 지붕삼고 초목을 이불삼아 덮고 살았습니다, 좋은 제 집에 와서야 왜 구차스럽게 남의 집에 가서 자겠습니까, 나는 우리 집에서 자겠습니다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눅눅한 방에서 할아버님께서 덮으시던 무명이불을 덮고 쉬게 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날 밤 항일무장투쟁의 나날들을 더듬어보시며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의 얼굴도 그려보시고 은인들도 생각하시고 어린시절도 추억하시고 새 조국의 미래도 설계해보시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만경대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환영하는 마을사람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모임에서 인민들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새 조국 건설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20년만에 고향 만경대를 찾으신 날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경사의 날이였으며 해방된 우리 조국력사에 아로새겨진 영광의 날이였습니다.

제 4 과
몸소 써주신 문패

우리 농민들이 대를 두고 바라던 소원은 제 땅을 가지고 마음껏 농사를 지어보았으면 하는것이였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농민들의 이 소원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크나큰 은덕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석달동안이나 대동군을 비롯한 여러 농촌들에 나가시여 농촌형편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줄 방도를 찾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에 기초하여 주체35(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법령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법령에서 일제놈들과 놀고먹던 지주

놈들의 땅, 소작주던 모든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땅이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줄데 대하여 밝히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주는 토지개혁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농민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토지개혁이 한창 벌어지던 어느날 대동군의 농촌마을들을 찾으시였습니다.

내리마을에 들리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토지개혁정형을 알아보시고 걸린 문제들을 몸소 풀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성문리에 있는 지주집에도 들리시였습니다.

해방이 되자 지주놈은 남조선으로 도망치고 그 집에는 머슴살이를 하던 사람들이 살고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대문안에 들어서시자 그들은 한달음에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대원수님께 큰절을 올리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손을 잡아일으키시며 이제는 땅의 주인인데 이래서야 되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리시고는 머슴살이로 거북등처럼 갈라터진 그들의 손을 쓸어주시며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아보시였습니다.

그들의 피맺힌 지난날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몹시 가슴아파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 집과 이 집세간살이등속을 몽땅 이 집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신분들에게 드리고 땅도… 지주네 땅가운데서 제일 좋은것으로 이분들에게 드립시다.》

일군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말씀올렸습니다.

잠시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 집 대문기둥에 대대로 머슴을 살아온 농민의 이름을 손수 쓰신 새 문패를 달아주시였습니다.

그 농민은 너무도 꿈같은 일이여서 몇번이고 눈언저리를 닦으면서 문패를 쳐다보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얼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그 농민에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집에서 동무가 지주놈 부럽지 않게 잘살아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머슴군이였던
한 농민에게 주신 기와집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 걸음으로 그 농민을 데리고 밭으로 나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표말에 머슴군이였던 그 농민의 이름을 큼직하게 써주시고 그에게 이 밭을 영원히 부쳐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장군님! … 정말 고맙습니다.》

그 농민은 솟구치는 감격과 기쁨을 참지 못하여 표말을 그러안고 목놓아울었습니다.

이것은 그 농민 한사람만이 받아안은 사랑과 은정이 아니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은덕으로 우리 나라의 모든 농민들이 땅의 영원한 주인으로 되였습니다.

머슴—낡은 사회에서 지주나 부농에게 얽매여 고용살이를 하는 사람.
토지개혁—나라에서 지주놈의 땅을 빼앗아 땅이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는것.

제 5 과
《**김일성**장군의 노래》에 깃든 이야기

해방후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는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혁명업적을 노래에 담아 길이 전하고싶은 소원이 간절하였습니다.

인민들은 이 간절한 소원을 담은 편지들을 당중앙위원회에 보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지은 가사와 곡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온 나라 인민들의 이렇듯 뜨거운 흠모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해갔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불멸의 혁명송가창작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습니다.

주체35(1946)년 5월 어느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김책선생님이 가져온 **김일성**장군님의 노래를 지어달라는 내용이 담겨진 편지

들을 보아주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 편지들을 읽어보시고 인민들의 이런 목소리를 듣는것이 정말 기쁘다고 하시면서 지체하지 말고 우리 장군님의 노래를 짓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김일성**장군님의 노래를 지어야 한다, 이제 짓게 될 노래는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업적을 칭송하는 노래로,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불러갈 영원한 노래로 되게 잘 짓도록 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후 김책선생님을 통하여 송가창작실태를 자주 알아보시였습니다.

어느날 김책선생님을 찾아온 시인은 자기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는 아무리 애써도 송가의 시상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항일유격대의 마지막대원이였다고 해도 이렇게까지는 고심하지 않았을것이라고, 자기는 장군님에 대하여 너무도 모르는것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아신 어머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체험이 없는 시인이 장군님에 대하여 노래하자니 어려울것이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가지고계시던 노래수첩을 보내주시였습니다.

거기에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친히 지으신 노래를 비롯하여 100여편의 혁명가요가 들어있었습니다.

가사초고가 다 되자 시인은 김정숙어머님께 보여드리고 가르치심을 받았으면 하는 의향을 김책선생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김책선생님은 시인을 데리고 어머님께로 갔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동안 수고가 많았겠다고 하시며 가사를 보아주시였습니다.

시인이 가사에 대한 가르치심을 주실것을 말씀드리자 어머님께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모시고 항일무장투쟁을 하실 때 겪으신

가지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싸워오신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발자취는 우리 나라 그 어디에나 깃들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발자취는 백두산의 험한 줄기들과 압록강과 두만강의 굽이굽이에도 어리여있다고 하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계속하여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은 장군님의 존귀하신 성함과 더불어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빛을 뿌릴것입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적던 시인은 갑자기 탄성을 올리더니 김책선생님의 손을 잡으며 이제야 혁명송가의 시상을 찾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은 곧 시인이 그처럼 모대기며 찾고있던 혁명송가의 시상이였습니다.

시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불멸의 혁명송가의 가사를 열정적으로 읊었습니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욱
아 —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이렇게 완성되였습니다.

그후 불멸의 혁명송가《**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삽시에 온 나라 전체 인민에게 보급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이 그토록 부르고싶던 수령의 노래, 태양의 노래는 조국의 맑은 하늘로 힘있게 메아리쳐갔습니다.

불멸의 혁명송가가 나온 그때로부터 우리 인민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송가—위대한분의 위업을 칭송하여 지어 부르는 노래.

제 6 과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뜨시여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해방후 우리 인민을 새 조국 건설을 위한 로력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몸소 보통강개수공사를 발기하시였습니다.

지난날 보통강은 우리 인민의 피눈물을 자아내던 원한의 강이였습니다.

보통강은 비가 조금만 내려도 물바다를 이루어 그 피해가 몹시 컸습니다. 특히 장마철이면 물이 무섭게 넘쳐나 많은 땅을 밀어내고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뿐아니라 수많은 살림집들을 단숨에 휩쓸군 하였습니다.

다른데 발붙일 곳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해마다 물란리가 난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할수없이 이 강변에 거적대기로 움막을 치고 거지나 다름없이 살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강의 토성랑을 거랑촌, 빈민굴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정말 보통강은 눈물의 강, 재난의 강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보통강물길을 바로잡는 일을 벌릴것을 생각해오시였습니다.

그리고 해방후에는 나라사정이 그처럼 어려웠지만 보통강물길을 바로잡는 일을 우리 인민의 힘으로 할것을 결심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여러차례 현지를 돌아보시면서 보통강개수공사의 절박성을 강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대책들을 세워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지도밑에 주체35(1946)년 5월 21일 드디여 보통강개수공사착공식을 진행하게 되였습니다.

이날 이른새벽부터 평양시는 크나큰 감격과 흥분으로 들끓었습니다. 보통벌은 잠간사이에 사람들로 하얗게 덮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날 공사장에 친히 나오시였습니다.

순간 온 벌판이 떠나갈듯 한《**김일성**장군 만세!》의 우렁찬 환호소리가 터져올랐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고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보통강개수공사는 평양시민들이 애국적인 로동으로써 민주주의 새 조선 건설에 기여하는 첫 사업이며 해방된 우리 인민이 처음으로 하는 대자연개조사업입니다. 우리는 보통강개수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냄으로써 이 공사가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자연개조사업의 첫 봉화로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교시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안겨주고 그들의 사기를 천백배로 북돋아주었습니다.

이윽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군중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시면서 친히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뜨시였습니다.

순간《만세!》의 환호소리가 또다시 하늘땅을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벌을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꾸려주시려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높은 뜻에 감격하여 눈시울을 적시였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뜨신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은 해방된 이 땅우에 부강한 새 조선을 일떠세워 우리 인민을 잘살게

하기 위한 대자연개조의 첫삽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보통강개수공사를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여러차례 현장에 나오시여 공사를 지도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지지도에 고무된 건설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는 전투를 벌리였습니다.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

이 나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나어린 **김정일**대원수님과 함께 공사장에 나오시여 건설자들의 투쟁을 고무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건설자들은 일제놈들이

10년이 걸려서도 하지 못한 이 어려운 공사를 5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 자랑찬 승리를 총화하기 위하여 보통강개수공사완공경축대회를 성대히 가지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 경축대회에서 평양시민들의 로력적성과를 열렬히 축하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혁명의 수도에 지펴올리신 자연개조운동의 불길은 온 나라에 세차게 타번지였습니다.

개수공사—물길을 튼튼하게 고쳐쌓는 일.

제 7 과
《공장은 로동자에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되게 하신데 이어 로동자들을 공장의 주인으로 되게 하시였습니다.

로동자들을 공장의 주인으로 되게 하자면 공장들을 나라와 인민의것으로 만들어야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국을 해방하시자 곧 《공장은 로동자에게》라는 구호를 내놓으시고 일제와 그 앞잡이놈들이 가지고있던 모든 공장들을 로동자들이 틀어쥐고 관리하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35(1946)년 4월 청진제철소를 찾으시여 로동자들에게 공장의 주인이라는 책임감을 안겨주시였습니다.

그때 이 제철소는 일제놈들이 쫓겨가면서 기계설비를 모두 마사버려 돌아가지 못하고있었습니다.

숨죽은 제철소를 둘러보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곳 로동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청진제철소의 주인은 모든 로동자들입니다. 동무들이 해방전에는 나라없는 민족의 설음을 안고 식민지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지만 이

제는 제철소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였습니다. 동무들은 응당 공장의 주인구실을 하여야 하며 제철소를 하루속히 복구정비하여 철을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로동자들은 나라의 주인된 자기들의 책임감을 깊이 느끼였습니다.

이날 용광로직장에 이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1호용광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였습니다.

그러시다가 한 로동자가 나무로 만든 총을 쥐고 용광로를 지키는것을 보시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 로동자가 못내 대견하여 이윽토록 바라보시였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건만 로동자들이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지키고있는것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시여 여기서 무엇을 하고있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아직 자기앞에 계시는분이 뉘신지 미처 알아보지 못한 그 로동자는 엉거주춤하며 경비를 서고있다고 대답을 올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꽉 그러잡아주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동무가 경비를 서고있소? 용광로를 지키고있단 말이지. 좋소. 좋은 일이요! …》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니 그 로동자는 그만 몸둘바를 몰라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만족하신듯 그에게 이젠 동무들이 이 공장의 주인이기때문에 응당 공장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뒤늦게야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알아본 그 로동자는 너무도 감격하여 끝내 흐느끼고야말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다녀가신 후 이곳 로동자들은 한결같이 떨쳐나서 제철소를 더 잘 지키면서 제철소복구건설을 힘있게 다그

쳤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장, 기업소들이 로동자들의 손에 들어오게 되고 일제와 그 앞잡이놈들이 마사놓은 공장들은 하나하나 복구되여갔습니다.

이제는 일제와 그 앞잡이놈들이 가지고있던 공장, 기업소를 나라와 인민의것으로 되도록 하는 법을 세상에 공포하는 일만이 남아있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35(1946)년 8월 중요산업을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 법령에서 일제와 그 앞잡이놈들이 가지고있던 공장, 기업소, 광산,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을 모두 나라의것으로 만들게 하시였습니다.

이리하여 전체 산업의 90%이상에 달하는 공장, 기업소들이 완전히 나라와 인민의것으로 되였습니다.

공장, 기업소의 주인이 된 로동자들은 새 조국 건설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제철소—쇠돌을 원료로 하여 철을 생산하는 기업소.

산업국유화—공장, 광산, 기업소, 체신, 교통운수수단 및 은행과 같은것들을 나라의것으로 만드는 일.

제 8 과
첫 민주선거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해방직후에 세우신 인민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주체35(1946)년 11월 3일에 도, 시, 군인민위원회 위원선거를 실시하게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랜 세월 착취와 압박을 받으며 살아온 우리 인민이 난생처음으로 선거에 참가하게 되였습니다.

첫 민주선거를 맞이하는 감격과 기쁨이 거리와 마을에 차고넘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원후보자추천사업이 진행되였습니다.

평안남도 강동군 삼등면(당시) 인민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자기 선거구의 위원후보자로 높이 추대하였습니다.

이곳 인민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하여 자기들의 대표들을 평양으로 보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대표들을 친히 만나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대표들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며 그들이 알고싶어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알기 쉽게 해설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과 앞으로 해야 할 일들도 말씀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였을 때였습니다.

대표들가운데서 제일 나이많은 한 로인이 정중히 일어서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삼등에 한번 꼭 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씀드리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 이튿날 삼등을 향하여 떠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모신 차가 강동땅에 들어서자 명절옷차림을 한 이곳 인민들이 꽃묶음을 들고 《**김일성**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부르며 대원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습니다.

마을어구에 이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차에서 내리시여 군중들에게 인사를 보내시면서 걸음을 옮기시였습니다.

환영군중대회장으로 가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였습니다.

무명필이 길우에 주단처럼 펼쳐져있었기때문입니다.

인민들이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싶은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펴놓은것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들의 뜨거운 마음을 헤아리시였지만 인민들이 옷을 해입을 천을 밟을수 없다고 하시며 일군들에게 어서 천을 거두라고 엄하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무명천을 거둔 다음에야 걸음을 옮기시였습니다.

이어 군중대회가 열리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군중대회에서 자신을 위원후보자로 추천해준데 대하여 선거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어 선거자들앞에서 연설을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가 실시하는 도, 시, 군인민위원회 위원선거는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입니다.》

그러시고는 나라의 주인이 된 로동자, 농민들이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부강한 조국을 건설하는데서 모범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날 각계각층 대표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오래동안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저녁에야 마을을 떠나시였습니다.

드디여 첫 민주선거의 날이 왔습니다.

온 나라의 선거장들에서 흥겨운 노래소리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명절옷차림을 한 인민들이 앞을 다투어 선거에 참가하였습니다.

첫 민주선거는 위대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선거승리에 기초하시여 주

체36(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세우시였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몸소 세우신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우리나라에 세워진 첫 사회주의정권이였습니다.

이때로부터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게 되였습니다.

제 9 과
《원철직장을 흔적도 없이 폭파해버리시오》

우리 나라에서는 1947년부터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인민경제계획수행에로 인민들을 이끄시면서 로동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뜨거운 사랑을 돌려주시였습니다.

주체36(1947)년 9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성진제강소를 찾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제강소를 돌아보시다가 누런 연기가 피여오르는 한 일터를 가리키시며 무슨 직장인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 직장은 강철을 생산하는 첫 공정을 맡아하는 원철직장이였습니다.

그곳 로동자들은 전국증산경쟁운동총화에서 1등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힘찬 로력투쟁을 벌리고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그리로 가보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일군들은 당황하여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앞을 막아나섰습니다. 그 직장이 건강에 해롭고 위험한 곳이기때문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막아서는 일군들에게 《일없습니다. 저안에서 우리 로동자들이 일하고있는데 왜 나라고 못 들어가겠습니까. 강철생산의 첫 공정을 담당한 중요한 직장인데 들어가봅시다.》라고 하시며 원철직장으로 향하시였습니다.

직장안은 어둑침침하고 무연탄가스냄새로 꽉 차있었습니다.

게다가 흩날리는 쇠돌가루, 무연탄가스때문에 앞을 가려보기 힘들었습니다. 그속에서 용해공들은 부지런히 일하고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오래도록 원철직장안을 살펴보시였습니다.

이때 제강소의 한 일군이 원철직장에 깃든 피눈물나는 력사를 말씀올렸습니다.

지난날 일제놈들은 이 원철로를 눅은 값으로 만들어놓고 강철을 뽑았습니다.

놈들은 전기피해를 막을 아무런 장치도 해놓지 않고 로동자들을 부려먹었습니다. 그러다나니 수많은 로동자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어느해에는 단번에 수십명의 로동자들이 무리로 죽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피눈물나던 일터였지만 해방후 강철이 너무도 귀중하여 원철직장을 그대로 돌려 철을 뽑고있었습니다.

불길이 솟구치는 로와 땀투성이가 되여 일하는 용해공들을 지켜보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강철이 아무리 귀중하다 해도 우리 로동자들의 생명과는 절대로 바꿀수 없습니다. 강철을 적게 생산해도 좋으니 우리 로동자들의 원한이 서린 원철직장을 없애버려야 하겠습니다.》

순간 일군들은 저마다 자기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때로 말하면 강철 1t이 참으로 귀중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로동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원철직장을 통채로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시는것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크나큰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이곳 로동계급은 쇠물을 녹이는 새 방법을 연구하는 한편 원철로에서 더 많

은 강철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벌렸습니다. 그들은 새 방법을 찾기 전에는 나라에 귀중한 강철을 보장하는 원철직장을 없앨수 없었던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해 6월 또다시 이 제강소를 찾으시고 일군들을 엄하게 꾸짖으시였습니다.

그리고 원철직장을 결정적으로 없애버릴 대책을 세워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아까울것이란 하나도 없소. 원철직장은 왜놈들이 남겨놓은 우리 로동자들의 원한이 스며있는 저주로운 일터입니다. 원철직장을 흔적도 없이 폭파해버리시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성진사람들은 감격에 목메여 서로 얼싸안고 돌아가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드디여 원철직장을 폭파하는 요란한 폭음이 울렸습니다.

원철로들이 하늘로 날아나버리고말았습니다.

력사는 아직 로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옹근 한개 직장을 폭파해버리였다는 사실을 모르고있습니다.

원철직장의 폭파! 이것은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세상에 보여준 하나의 사변이였습니다.

제 10 과
혁명가유자녀들의 친부모가 되시여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국해방을 위한 성전에서 희생된 전사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유자녀들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해방된 조국강산에 기쁨과 행복이 넘칠수록 이 영광의 날을 보지 못하고 곁을 떠나간 혁명전

사들에 대한 생각이 간절하시였습니다.

해방된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밤이였습니다.

창문가에 서시여 소리없이 내리는 흰눈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국의 첫눈을 보니 희생된 동지들 생각이 간절해지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20성상에 걸치는 간고한 항일혁명의 길에서 나라를 찾기 위해 목숨바친 투사들은 한둘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들 한사람한사람을 모두 잊지 않고계시였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숨지는 마지막순간에 아들딸들을 훌륭한 혁명가로 키워달라던 그 간절한 부탁을 잊지 않고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이제는 나라가 해방되였으니 우리의 곁을 떠나간 전사들의 그 소원부터 풀어주어야 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아직 나라의 형편이 어려웠지만 혁명학원을 내오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친히 학원창립준비위원회를 무어주시고 학원의 터전까지 잡아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한편 부모를 잃고 사방에서 헤매고있을 혁명가유자녀들을 찾는데 큰 힘을 기울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지방을 현지지도하실 때나 여러곳에서 올라온 일군들을 만나실 때면 의례히 그 지방에 있음직한 혁명렬사들의 자녀들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그들을 찾아낼데 대하여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애들을 찾는다는것을 신문과 방송에도 내게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중국땅 그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유자녀들까지도 빠짐없이 찾으시려고 일군들을 보내시였습니다.

1947년 여름에 들어서면서 유자녀들이 평양으로 모여왔습니다.

유자녀들이 도착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며 다음날 학원으로 나가시였습니다.

학원에 이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그들에게 이름은 무엇이고 나이는 몇살이며 아버지는 누구인가를 하나하나 물어보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오랜 시간 유자녀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에게 앞날에 대한 희망과 포부를 안겨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후에도 여러차례 학원에 나가시여 유자녀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개원식준비도 지도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에 의하여 마침내 주체36(1947)년 10월 혁명학원개원식이 성대히 진행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몸소 개원식에 참가하시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곁을 떠난 혁명투사들의 최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부탁대로 유자녀들을 훌륭한 민족간부로 키워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날 학원에서 준비한 여러가지 행사에 친히 참가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혁명가유자녀들에게 온갖 사랑을 다 돌려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개원식날 원아들의 호실을 돌아보실 때였습니다.

한방에는 친척없는 아이들이 모여서 쓸쓸하게 앉아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그 방에 들어서시자 외로움을 참고있던 원아들이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대원수님의 품에 안기며 흐느끼였습니다.

만 경 대 혁 명 학 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들을 꼭 껴안으시고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니냐.》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옆에 계시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눈굽을 찍으시며 《애들아, 울지 말아라. 너희들에게도 아버지가 계신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지 않느냐.》라고 아이들을 달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날 오래도록 원아들과 같이 계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명랑하게 해주시고서야 방을 나서시였습니다.

이날의 일을 잊지 않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후에도 원아들의 마음속에 한점의 그늘이라도 질세라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속에서 혁명가유자녀들은 세상에 부럼없이 생활하면서 혁명의 계승자로 씩씩하게 자라났습니다.

개원식－학원이 처음으로 일을 시작할 때 가지는 모임.

제 11 과
한없이 넓은 도량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애국애족의 마음이 가슴속 한구석에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과거를 묻지 않고 조국통일을 위한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민족분렬의 검은 구름이 짙어가던 1948년 3월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민족분렬책동을 짓부시기 위하여 남북련석회의를 친히 발기하시고 남조선의 각 정당, 각파, 각계층 인사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명단대로 초청장을 작성하던 일군들은 김구의 이름에서 눈길을 딱 멈추고 굳어져버렸습니다.

해방전에는 《상하이림시정부》(《상해림시정부》)의 우두머리로서, 해방후에는 《한국독립당》 당수를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테로도 감행해온 그는 민족앞에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였습니다.

이런 사람과도 손을 잡아야 하는가 하며 일군들은 망설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때 일군들을 타이르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는 물론 반공을 해온 사람이고 민족주의자요. 그러나 그에게는 반일감정이 있고 지금은 미국도 좋아하지 않소. …그에게는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애국심도 있는것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공동의 위업을 수행하는데서 김구와 합작을 못할 리유가 없소.》

이 대해같은 도량과 뜨거운 포용력에 의해 김구에게도 초청장은 정확히 전달되였습니다.

그런데 초청장을 받은 김구자신이 선뜻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동요하였습니다. 자기의 죄많은 지난날이 마음에 걸려서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어떻게 대하겠는지를 알아보려고 자기의 비서를 평양에 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러한 그에게 일체 과거를 백지화한다는것을 담보하시였습니다.

이렇게 되여 김구가 평양으로 오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김구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김구가 마음을 굳게 먹고 북반부에 들어온것을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적인 행동으로 높이 평가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회의의장단성원으로 포함시켜주시였으며 회의에서 연설도 할수 있게 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또한 그의 숙소까지 몸소 찾으시여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김구를 비롯한 남조선대표들에게 평양은 물론 북반부의 여러곳을 자유롭게 가볼수 있도록 해주시였습니다.

김구가 유서깊은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였을 때였습니다.

이날도 김보현할아버님께서는 일을 하고계시였습니다.

김구는 나이 많으신 할아버님께서 여전히 자그마한 초가집에 계시면서 전이나 다름없이 농사일을 하시는 사실에 몹시 놀랐습니다.

그는 두손으로 할아버님의 거치른 손을 모아잡고 《손주님을 일국의 령도자로 두신분이 어찌하여 이런 험한 일을 하십니까?》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님께서는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나는 본래 농군이요.

손자는 령도자이지만 나야 농군인데 어찌 일을 하지 않겠소.

…

4월남북련석회의가 열리였던 모란봉극장

예로부터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였는데 농사군인 내가 농사를 잘 지어야 우리 손자가 정치를 잘할것이 아니요.》

할아버님의 이 말씀에 김구는 크게 감동되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구가 평양에 머무른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령도력, 숭고한 덕성에 완전히 매혹된 그는 **김일성**장군님이시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독립과 번영의 길로 이끄실 민족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라고 높이 칭송하였습니다. 하기에 그는 서울로 나가기 전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소중히 간직하고다니던 《상하이림시정부》의 인장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여생을 조국통

일을 위해 바칠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정녕 하늘같은 도량과 포옹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품은 온 겨레를 민족대단결의 한품에 안아주는 위대한 품이였습니다.

련석회의ー여러 단체나 정당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관심사로 되는 어떤 문제를 토의하는 회의.

제 12 과
첫 땅크부대가 조직되기까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37(1948)년 2월 조선인민혁명군을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땅크부대를 조직하는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해 8월 어느날 항일혁명투사 류경수선생님을 부르시여 땅크부대를 조직할 과업을 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투사선생님에게 나라의 긴장한 정세는 인민군대를 강력한 혁명무력으로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특히 땅크부대를 조직하는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날 저녁 투사선생님을 저택에까지 데리고가서 하루밤을 보내시면서 땅크부대를 조직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땅크부대를 조직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주신 임무대로 항일투사선생님은 곧 땅크부대를 꾸리는 사업에 달라붙었습니다. 부대의 자리를 잡고 훈련생들을 모집하며 병실과 훈련장을 꾸리였습니다.

이럴 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부대들과 각 도당에

전화를 거시여 기술자들을 보내주도록 하시고 필요한 설비와 기자재들도 해결해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준비사업을 끝내고 훈련을 시작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훈련이 시작된지 며칠이 지난 어느날 투사선생님을 또다시 부르시였습니다.

그를 반갑게 맞아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땅크부대를 꾸리느라 고생이 많았겠는데 어디 좀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투사선생님은 애로는 좀 있었지만 장군님께서 다 풀어주셔서 이제는 훈련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다가 문득 《땅크병들을 언제까지면 키울수 있겠소?》라고 물으시였습니다.

그 물으심에 투사선생님은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주저하던 그는 아무래도 시일이 좀 걸려야 될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훈련생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낫놓고 기윽자도 모르던 까막눈인데다가 땅크는 현대적인 전투기술기재이기때문이였습니다.

그리고 땅크를 이미 배운 사람들의 경험도 3년은 실히 걸린다는것이 상식처럼 되여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잠시 심중한 표정을 짓고계시다가 우리 인민은 다시는 노예로 될수 없다, 우리는 조선혁명을 보위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석달동안에 땅크병들을 키워내자는것이다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땅크부대는 수도를 보위하고 우리 혁명을 지키는데서 기본부대입니다. 이것을 언제나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에 투사선생님은 석달동안에 땅크병들을 꼭 키워내겠다고 대답올리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로부터 며칠후 땅크부대를 찾아주

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땅크병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그동안의 훈련정형을 알아보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달라붙으면 얼마든지 땅크를 배울수 있다, 정세가 긴장한 때 땅크기술하나 배우지 못해서 쩔쩔매서야 되겠는가고 말씀하시였습니다.

훈련생들은 《할수 있습니다.》라고 우렁차게 대답하였습니다.

다음날부터 맹훈련이 진행되였습니다.

드디여 훈련생들은 름름한 땅크병들로 자라났습니다.

모든것이 갖추어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땅크부대의 탄생을 선포하시였습니다.

어느날 땅크부대에 오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군기를 수여하시였습니다.

뒤이어 땅크열병식이 진행되였습니다.

땅크들이 지축을 울리며 꼬리를 물고 줄지어 나아갔습니다.

땅크병들에게 박수를 보내주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우리 땅크병들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한 전사들이고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 어떤 원쑤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수 있는 땅크부대를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 인민군대는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군기—해당한 군부대를 표시하는 기발.
군부대이름을 새겨 부대를 상징한다.

제 13 과
공화국을 창건하시던 나날에

남북련석회의가 있은 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남조선에서는 단독선거가 파탄되였습니다.

그러나 교활한 미제는 선거결과를 날조하여 남조선에 괴뢰정권을 꾸며내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영원히 둘로 갈라질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세를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37(1948)년 6월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들의 지도자협의회를 여시고 지체없이 전조선적인 중앙정부를 세울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단독정부를 세울것이 아니라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써 전조선정부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북남총선거를 실시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전조선정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워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우기 위한 준비사업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먼저 공화국헌법초안을 완성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나라이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정하는 문제를 토의할 때였습니다. 나쁜 놈들이 나라이름문제를 두고 시비해나섰습니다. 이자들은 나라이름이 너무 길다느니, 외국에서는 나라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다느니 하면서 잡소리를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자들의 그릇된 견해를 까밝히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국호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알맞는 가장 정당한 국호라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국기, 국장, 국가도 우리 식으로 제정하도록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37(1948)년 8월 전체 인민을 북남총선거에로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북과 남의 전체 인민들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북반부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선거가 진행되였습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놈들의 탄압과 방해책동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선거를 할수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깊이 헤아리시고 남조선의 현실조건에 맞게 선거를 진행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습니다.

그것은 먼저 비밀리에 선거자들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인민대표를 선출한 다음 그 인민대표들이 북반부에 들어와 대표자대회를 열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을 선거하도록 하는것이였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생각할수 없었던 가장 현명한 조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로 북남총선거는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시여 주체37(1948)년 9월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를 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습니다.

그날이 바로 주체37(1948)년 9월 9일이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으로 높이 모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국가수반으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인민의 가장 큰 영예이고 행복이며 자랑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참된 주인으로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였습니다.

헌법－국가의 기본법.

최고인민회의－우리 나라의 최고주권기관이며 최고립법기관.

제 14 과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잘못 보았소》

오래전부터 침략전쟁을 준비하여온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놈들은 1950년 6월 25일 드디여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의 불을 질렀습니다.

이날 이른새벽 38° 선을 넘어 공화국북반부에 쳐들어온 놈들은 단숨에 북반부를 삼켜보려고 날뛰면서 전쟁의 불길을 더욱 넓혀갔습니다. 그리하여 평화롭던 조국땅우에 총포소리가 울리고 전쟁의 불구름이 뒤덮이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곧 내각비상회의를 여시였습니다.

내각비상회의가 열리는 회의장안은 엄숙하고 긴장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습니다. 전쟁의 피로 얼룩진 미제와 맞다들어 싸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모두가 심각한 얼굴로 앉아있었습니다.

이때 복도쪽에서 여느때나 다름없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참으로 통쾌하고 여유있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이어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놈들이 어리석기 짝이 없소.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잘못 보았소.》

회의참가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굳은 신심이 생겼고 래일의 승리가 내다보이는듯 하였습니다.

이윽고 회의주석단에 자리를 잡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언제나와 같이 환하신 얼굴로 회의참가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승냥이는 몽둥이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과 같이 조선사람을 몰라보고 덤비는 놈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밀려드는 대적을 앞에 두고도 여느때와 다름없는 그 모습, 어떤 강적도 단매에 때려눕힐 기상과 강철같은 의지가 넘쳐나는 그 말씀은 회의참가자들에게 백배천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사실 갓 창건된 우리 공화국과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고 뽐내는 미제와의 대결, 얼핏 보기에는 그것은 너무나도 짝이 기운 전쟁이였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사람들은 조선이 과연 미제와 맞서겠는가 하고 걱정하면서 우리 나라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미제의 《강대성》에 대하여서는 생각밖에 두시였습니다.

오직 싸움을 걸어온 놈들을 단매에 쓸어눕혀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줄 단호한 결심을 내리실뿐이였습니다.

회의참가자들은 조였던 마음을 풀며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을 한마디한마디 가슴에 새겨나갔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와 영예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들과 단호히 싸워야 합니다. 적들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에 우리는 정의의 해방전쟁으로 대답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계속하여 인민군대와 당 및 국가, 경제기관들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 다음날 력사적인 방송연설을 하시여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를 전쟁승리에로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전시환경에 맞게 모든 사업을 전시체제로 바꾸도록 하시고 군사위원회를 내오시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전쟁승리를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일떠섰습니다.

전선과 후방이 하나의 전투대오로 튼튼히 꾸려졌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명령을 받들고 반공격에로 넘어간 인민군부대들은 침략자들을 쳐부시며 남으로 진격하였습니다.

반공격—쳐들어오는 적을 소멸하기 위하여 방어로부터 공격에로 넘어가는 적극적인 전투행동.

제 15 과
전선사령부를 찾으시여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명령을 받들고 인민군대는 남으로 진격하였습니다. 6월 28일에는 서울을 해방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쫓겨난 미제는 대전에 몰켜들어 인민군대의 진격을 막아보려고 발악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대전지역에서 미제의 기본력량을 포위소멸할것을 계획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39(1950)년 7월 중순 전선형편을 알아보시기 위하여 서울에 있는 전선사령부를 찾아 떠나시였습니다.

남으로 뻗은 전선길, 그것은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포연속을

헤쳐나가야 하는 어려운 길이였습니다.

하기에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모시는 호위성원들은 떠날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을 놓을수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모시고 폭격의 섬광이 번쩍이는 어둠속을 뚫고 달리던 승용차는 림진강에 이르러 더 나갈수 없게 되였습니다.

놈들의 폭격에 다리가 끊어졌기때문이였습니다.

날밝기 전에 전선에 가닿아야 하겠는데 방도가 떠오르지 않아 호위성원들은 어쩔바를 몰라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근방에 철교가 있을테니 알아보라고 하시였습니다. 철교는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철교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으시자 그리로 림진강을 건느자고 하시였습니다.

호위성원들은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어두운 밤 침목을 타고 넘어간다는것은 위험한 일이였고 더우기 항시적인 폭격대상물로 되고있는 철교로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모실수 없었기때문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저하는 일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전선의 동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있소. 전선에서는 이 시각에도 동무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주저하고있겠소. 어서 건너갑시다!》

싸우는 전사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그 말씀에 호위성원들은 뜨거운것을 삼키였습니다.

이윽고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모신 승용차가 림진강철교에 들어섰습니다.

승용차는 침목을 하나하나 타고넘으며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호위성원들은 손에 땀을 쥐고 승용차만을 주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태연히 먼 남녘의 산발들만을

지켜보고계시였습니다.

이렇듯 위험을 무릅쓰시고 전선사령부를 찾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대전의 적을 포위소멸할수 있는 작전적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지지도에 고무된 인민군전투원들은 7월 20일 미 제24사단과 괴뢰군들을 포위소멸하고 대전을 해방하였습니다.

전선이 남으로 더욱 멀어지고 치렬한 격전은 계속되였습니다.

전선의 형편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려워진 전선형편을 바로잡아주시기 위하여 8월초 수안보에 자리를 옮긴 전선사령부를 또다시 찾아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맞이한 전선사령부는 감격과 흥분으로 설레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먼길의 피로도 푸실사이없이 지휘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전선사령부를 찾으실 때 리용하신 승용차

정치일군들의 회의를 소집하시고 전선정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였습니다.

전선실태를 료해하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부 지휘관들이 우리 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다른 나라의 전법을 그대로 쓰고있는데 대하여 비판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바로 조선땅에서 미제와 싸우고있는것만큼 우리 나라의 지형과 우리의 무장장비에 알맞는 전투방법으로 적을 때려부셔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또한 포병화력을 적극 인입하여 보병을 지원하며 산길과 산릉선을 리용하여 적의 익측과 후방으로 우회해서 적을 포위섬멸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습니다.

특히 야간전투행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에 전선사령부 지휘관들은 눈앞이 확 트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어 전사들을 찾아 포연자욱한 고지에도 오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감격과 기쁨으로 가슴들먹이는 전사들에게 전선에 나와서 건강한 동무들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미제침략자들을 모조리 남해바다에 처넣고 남녘땅을 완전히 해방하자고 뜨겁게 고무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전선지도는 인민군용사들을 무한히 감동시켰으며 원쑤격멸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였습니다.

그리하여 인민군부대들은 락동강계선을 돌파하고 적을 우리 나라 동남단의 좁은 지역에 몰아넣었습니다.

전선사령부—전쟁에서 일정한 전선의 전체 무력에 대하여 지휘하고 통솔하는 사령부.

제 16 과
장진호반에서의 대섬멸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공화국북반부에 기여든 미제침략자들을 쳐부시는 전투들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군부대들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고 주체39(1950)년 11월에는 새로운 반공격에로 넘어가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총 반공격에로 넘어가 청천강, 장진호반, 함흥, 청진일대에서 적을 포위소멸하고 공화국북반부의 전 지역을 적의 강점으로부터 해방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작전에서 우리는 주타격방향을 전선서부에 두고 전반적전선에서 반공격으로 넘어가며 주력부대들과 적후방에서 활동하고있는 제2전선부대들과의 배합작전을 적극 벌려 적의 기본집단들을 청천강, 장진호반, 함흥, 청진일대에서 포위소멸하고 공화국북반부의 전 지역을 적의 강점으로부터 해방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명령을 받은 인민군부대들은 장진호반일대에서 미제침략자들을 포위섬멸하기 위한 전투들을 벌리였습니다.

1 000여m의 평균높이를 가진 험산준령들이 성벽처럼 둘러싼 가운데 펼쳐진 장진호반에는 사나운 눈보라가 휘몰아치고있었습니다.

미제침략자들은 이 산골짜기의 좁은 수백리어간의 산길에 1만 수천명의 병력을 밀어넣었습니다. 놈들은 저들의 행군대오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기묘한 전법에 걸려들어 토막토막 잘리워 섬멸되리라는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있었습니다.

인민군부대들은 매복진을 치고 적들이 장진호반의 깊고 험한 골짜기로 깊숙이 기여들어오기를 기다리고있었습니다.

11월 27일 밤 드디여 인민군부대들은 장진호반에서 미제침략군을 무자비하게 쓸어눕히기 시작하였습니다.

놈들은 릉선과 골짜기들을 주검으로 뒤덮으면서도 포위망을 뚫어보려고 날뛰였습니다.

인민군부대들은 적들의 전투서렬을 열두군데나 끊어놓고 미제침략군 1만여명과 괴뢰군놈들을 겹겹이 포위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처에서 불의의 습격전을 벌리였습니다.

한 습격조는 미제침략군 1해병사단 지휘부근처의 고지에까지 뚫고들어가 적들을 200여명이나 소탕하였습니다.

장진호반에서의 격전은 12월에 들어서면서 더 치렬해졌습니다.

절망에 빠진 미제침략군놈들은 괴뢰군을 제놈들의 총알받이로 내몰고 저들은 달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적들이 달아날수 있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미 적들의 이러한 퇴각을 예견하시고 놈들의 퇴로를 차단할데 대하여 명령하시였습니다.

인민군부대들은 적들이 도망칠수 있는 외통길 요소마다에 매복진을 치고 대기하고있었습니다. 그것을 알리 없는 미제침략군놈들은 비행기의 엄호밑에 좁은 외통길을 까맣게 메우면서 자동차, 땅크들을 끌고 도망치고있었습니다.

벼랑밑과 산굽인돌이, 좁은 골짜기들에 매복하고있던 인민군군인들은 놈들의 긴 행렬을 여기저기에서 불의에 족쳐댔습니다.

놈들은 모조리 포위섬멸되였습니다. 장진호반과 그 일대 계곡들에는 적들의 포, 땅크, 장갑차들과 더러운 시체들로 뒤덮이였습니다.

이렇게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령군술에 의하여 장진호반일대에 기여들었던 미제침략자들은 쓰디쓴 참패를 당하고말았습니다.

제 17 과
포화속에서 마련된 전후복구건설의 설계도

전선에서는 가렬한 싸움이 계속되고있었습니다.

미제침략자들은 매일과 같이 도시와 마을을 마구 폭격하고 온 나라를 불길속에 싸이게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오직 전쟁에 대하여서만 생각하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벌써 전쟁의 승리를 내다보시고 전후복구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혀나가시였습니다.

미제놈들이 평양을 크게 폭격한 후인 주체40(1951)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맵짠 추위도 가리지 않으시고 몸소 평양의 거리들을 돌아보시였습니다.

적비행기의 폭격으로 파헤쳐진 험한 길을 걸으시며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습니다.

장대재언덕우에 오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윽토록 파괴된 평양의 거리들을 바라보시였습니다. 한동안 말씀없이 서계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전쟁이 끝나면 평양을 새로 건설해야 하겠는데 생각되는것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시였습니다.

누구도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일군들은 전쟁에 대해서만 생각하고있었기에 복구건설에 대해서는 감히 생각도 못해보았던것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전후복구건설을 준비해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러시고는 지금부터 평양시를 복구할 준비를 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복구건설준비방향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장대재에 학생소년궁전을 지어주고

평양역사도 새로 큼직하게 지으며 보통벌도 현대적거리로 만들자고 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시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쟁의 불비속에서 현대적대도시를 설계한다는것이 흥미있는 일이 아닙니까?》

일군들은 자기들로서는 미처 생각도 못한 일이라고 대답을 올렸습니다.

일군들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준비사업에 착수하도록 합시다. 아마 우리가 전후복구건설을 설계한다는것을 전선동무들과 인민들이 알면 큰 힘이 될것입니다.

반대로 미국놈들이 이것을 알면 기겁을 하고 나가자빠질것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은 일군들은 전쟁승리에 대한 신심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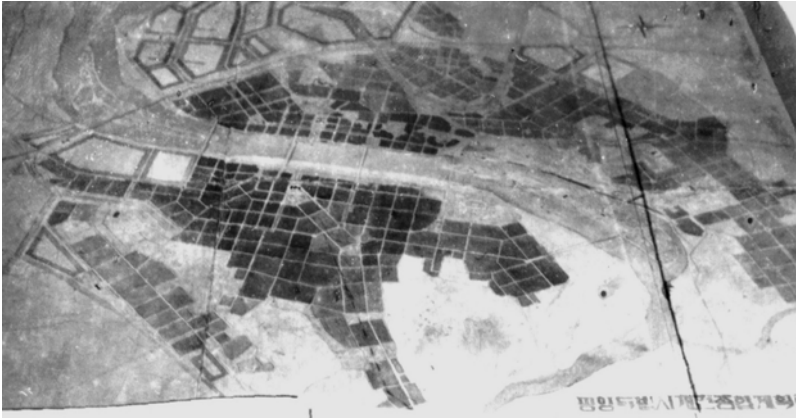
가렬한 전쟁속에서 전후복구건설을 설계하고 그 준비사업을 한 일은 력사에 일찌기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전쟁의 불길속에서 복구건설준비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어느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한 설계일군을 최고사령부로 부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가 도착하자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에게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를 만들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습니다.

그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평양을 전쟁전보다 더 웅장화려하고 아름답게 현대적으로 복구건설해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계속하여 도시중심부를 바로 정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거리형성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습니다. 지어 공원과 유원지자리까지 잡아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보아주신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

그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설계일군들을 다시 부르시여 작성된 설계초안을 보아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작전지도우에 공격의 화살을 그으시던 색연필로 공원과 유원지, 주택거리들을 표시하시면서 설계도를 몸소 완성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가 완성된데 이어 각 도소재지들의 복구를 위한 설계작성사업이 힘있게 벌어졌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오늘의 웅장하고 화려한 평양은 이처럼 경애하는 대원수님에 의하여 전쟁의 나날에 구상되고 설계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쟁이 한창인 때 모란봉지하극장에서는 평양시를 비롯한 각 도소재지들의 전후복구건설전망을 보여주는 설계전람회가 열리여 세상사람들을 경탄시켰습니다.

이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은 전쟁승리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것을 굳게 믿고 용기백배하여 원쑤놈들을 족치였습니다.

전후복구건설—전쟁이 끝난 뒤 다시 건설하는 일.

제 18 과
1211고지전투

가렬한 전쟁은 벌써 1년동안이나 계속되고있었습니다.

미제는 이 한해동안에 쓰디쓴 참패를 당하고 제놈들이 전쟁의 불을 질렀던 38° 선계선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놈들은 검은 속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적들은 마치 전선서부로 쳐들어올것처럼 하면서 은밀히 전선동부에 대병력을 들이밀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적들의 흉계를 간파하시고 전선동부 특히 1211고지계선을 철벽으로 다지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전선동부의 방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체40(1951)년 9월 어느날 1211고지계선을 찾으시였습니다.

1211고지와 한줄기로 이어진 최전연고지에 오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전선지휘관들에게 적의 주공방향을 알려주시며 1211고지방위의 중요성에 대하여 가르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1211고지를 지켜내지 못하면 그뒤에 의거하여 싸울만 한 고지가 없기때문에 원산까지 적에게 내주게 된다고 하시며 1211고지를 목숨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어 1211고지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가르치심대로 1211고지용사들은 고지를 철벽으로 다져놓았습니다.

1951년 9월말부터 미제침략자들은 1211고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미제침략자들은 쓰디쓴 참패를 거듭하면서도 어떻게 하나 1211고지를 빼앗으려고 미쳐날뛰였습니다.

그러나 1211고지의 용사들은 폭탄과 포탄이 우박치는 속에서도 적들의 공격을 용감하게 물리치였습니다.

인민군용사들은 고지우에 직사포를 끌어올려놓고 적들의 화점과 땅크들을 무자비하게 족치였습니다.

그리고 습격조원들은 대담하게 적들속에 깊이 들어가 적들을 끊임없이 녹여냈습니다.

이러한 나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1211고지방위자들에게 크나큰 사랑을 돌려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느날 깊은 밤 1211고지의 군단장을 전화로 찾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전투원들모두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보배들입니다. 그 전투원 한사람한사람이 다 귀중한 혁명전우들입니다. 그전에 우리가 일제군경들과 싸울 때 혁명전우들이 적은것이 얼마나 안타까왔습니까. 우리는 귀중한 보배들인 전투원들을 힘껏 돌봐주어야 합니다.

벌써 선기가 나는것 같은데 전투원들에게 더운 밥과 따끈한 국을 먹이도록 하며 잠자리도 춥지 않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투원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보살펴주어야 합니다.》

고지에서 싸우는 전사들과 지휘관들은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것도 선기가 나는것도 미처 느끼지 못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렇듯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전사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콩을 보내주어 고지에서 콩나물을 길러먹게 하시였으며 몸이 약한 전사들이 있다는 한 지휘관의 말을 들으시고는 화선휴양소를 조직하여 그들을 휴식시키게 하시였습니다.

전사들이 고향소식을 몰라 궁금해할것 같아 후방인민들이 전선에 편지를 보내게 하시였습니다.

인민군용사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에 고무되여 1211고지를 목숨바쳐 지켜낼것을 맹세하였습니다.

그들은 전투마다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영웅성을 남김없이 발휘

하였습니다.

무명고지에서 민청원 리수복이 피끓는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을 때 한 통신병은 끊어진 통신선을 자기의 몸으로 이어 부대의 통신을 보장하였습니다.

심한 부상을 당한 한 포병은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김일성**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원쑤들에게 불벼락을 안기였습니다.

1211고지방위자들은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가며 영웅적으로 싸워 조국의 고지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참으로 1211고지전투의 빛나는 승리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령도를 받는 인민군대는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다시금 보여주었습니다.

제 19 과
전승의 주석단을 내리시는 길로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은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주체42(1953)년 7월 28일 전쟁의 준엄한 시련을 이겨낸 영웅도시 평양에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경축하는 군중대회가 열리였습니다.

조국을 지켜싸운 영웅전사들, 전시생산에서 위훈을 떨친 로동자, 농민들, 적의 맹폭격속에서 영웅의 도시를 굳건히 지켜낸 평양시민들이 광장을 메웠습니다.

《**김일성**원수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

우렁찬 환호성이 끊임없이 울려퍼졌습니다.

광장을 뒤흔드는 열광적인 환호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한손을 높이 드시여 답례를 보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전승의 광장에 높이 서시여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연설에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총화하시고 전체 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시였습니다. 이어 전후 우리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히시였습니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용사들은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우러르며 만세의 환호를 올리고 또 올리였습니다.

전승을 경축하는 군중대회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인민의 힘, 그 어떤 강적도 쳐이기는 조선인민의 힘을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석단을 내리시는 길로 전체 인민을 복구건설에로 불러일으키시기 위하여 강남요업공장으로 가시였습니다.

이제는 전쟁도 이겼으니 3년간의 전쟁에서 겹쌓인 피로를 푸시며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이 경축의 날만이라도 쉬시기를 인민들은 바랐습니다.

하지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 절절한 소망도 뒤로 미루시고 강남요업공장부터 찾으시였습니다.

강남요업공장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전쟁시기에 승리를 내다보시고 몸소 터전을 잡아주시고 세워주신 공장이였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이미전부터 벽돌을 생산하고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오시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공장은 들끓었습니다. 로동자들은 일손을 멈추고 달려왔습니다.

로동자들은 치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그처럼 그립고그립던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자기들의 일터에서 뵈옵는 감격에 목이 메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로동자들의 험한 손을 잡으신채 정답게 쓸어만지시며 평양을 일떠세우고 온 나라를 건설할 이 손이 얼마나 귀중한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미국놈들이 밤낮없이 불비를 쏟아붓던 이 땅우에 더 웅장한 도시들을 일떠세우고 공장들을 짓고 농촌들을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전쟁시기 무비의 용감성을 발휘한것처럼 복구건설에서도 불패의 위력을 발휘해보자고 힘주어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에 접한 로동자들은 힘이 부쩍 솟았습니다.

잠시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로동자들과 함께 강뚝에 올라서시였습니다. 뚝밑으로는 대동강이 유유히 흐르고 제방 저쪽으로는 파괴된 평양시전경이 안겨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윽고 로동자들을 바라보시며 힘주어 말씀하시였습니다.

《여기에 환히 불을 밝힙시다. 대낮처럼 불을 밝히고 일을 합시다.》

그러시고는 저으기 흥분하신 목소리로 평양시민들이 그 불빛에 고무되여 승리의 신심을 더욱 굳게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촉수높은 전등을 많이 켜라고 두번세번 거듭 말씀하시였습니다.

로동자들은 온몸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가 뿜어나오는것 같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강남요업공장을 다녀가신 소식은 전후복구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였습니다.

제 20 과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전쟁이 끝나자 지체없이 파괴된 인민경제를 다시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로 인민들을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전쟁은 끝났으나 나라의 형편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미제놈들의 야만적인 폭격으로 공장, 기업소들과 부침땅, 철길, 도로, 학교와 극장, 영화관, 살림집들이 무참히 파괴되였습니다.

인민들에게는 먹을것과 입을것, 쓰고살 집이 모자랐습니다.

미국놈들은 조선은 앞으로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어서지 못할것이라고 떠벌이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은 순간부터 우리 나라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려고 날뛰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형편에서 무엇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당이 있고 정권이 있고 인민이 있고 령토가 있는 이상 또다시 새 생활을 꾸릴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시고 인민들을 복구건설에로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42(1953)년 7월 29일 제철소의 복구방향과 수행방도를 가르쳐주시기 위하여 황해제철소를 찾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맞이한 송림땅은 끝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설레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로동자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시고 제철소의 형편을 알아보시기 위하여 구내길로 걸음을 옮기시였습니다.

제철소는 너무도 혹심하게 파괴되였습니다.

구내에는 깊숙이 패인 폭탄자리, 무너져내린 벽체, 사방에 널

린 쇠붙이, 헝클어진 전기줄이 마구 한데 엉켜져있었고 어떤 곳에서는 아직도 연기가 나고있었습니다.

이윽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용광로옆 나지막한 언덕에 오르시여 한눈에 안겨오는 공장구내를 깊은 생각에 잠겨 굽어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과 로동자들을 바라보시며 파괴된 공장을 두고 락심할것이 아니라 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일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승리한것처럼 파괴된 인민경제를 복구하는데서도 승리할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이렇게 신심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황해제철소를 빨리 복구하여 철을 많이 뽑자고 로동자들을 고무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공장을 원상대로가 아니라 더 크게 건설합시다, 당은 동무들에게 황해제철소를 복구할 무거운 책임을 맡겼습니다, 나는 동무들이 이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리라고 믿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정문쪽을 향해 걸음을 옮기시며 파괴된 주택지구를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로동자들의 살림집에 대하여 걱정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한 로동자가 말씀드렸습니다.

《수상님! 념려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더 훌륭하게 살림을 꾸리겠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금시 환한 웃음을 띄우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미국놈들이 파괴한 평로자리에는 더 큰 평로를 세우고 불탄 초가집자리에는 벽돌집을 지어 복구건설에서도 미국놈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황해제철소 로동계급을 전후복구건설의 거창한 투쟁에로 불러

일으켜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이 쇠물을 뽑는 날에 다시 오겠다고 하시면서 제철소를 떠나시였습니다.

전후에 복구확장된 황해제철소의 일부

그때로부터 송림땅에서는 낮에 밤을 이어 복구건설을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졌습니다.

황해제철소에서 쇠물을 뽑게 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해 6월 또다시 제철소를 찾으시였습니다.

작업장에 이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용해공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동무들이 보고싶어서 왔다고 사랑에 넘친 말씀을 하시였습니다.

이윽고 출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불꽃을 날리며 이글거리는 쇠물이 폭포처럼 남비로 흘러들었습니다.

순간《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쇠물폭포가 쏟아지자 제일 선참으로

박수를 치시며 용해공들을 축하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날 황해제철소는 전후경제건설의 1211고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로동계급에게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습니다.

황해제철소의 로동계급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더 많은 철을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었습니다.

평로ㅡ선철과 파철을 녹여 강철을 생산하는 로.

제 21 과
농업협동화의 지름길을 마련하시려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전후 우리 나라 농촌의 형편을 깊이 헤아리시고 농민들을 협동화의 길로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농촌경리를 협동화하는 일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정확히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매개 군에 몇개씩 협동조합들을 시범적으로 조직하게 하시고 몸소 현지에 나가시여 조합들이 제발로 걸어나갈수 있도록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43(1954)년 4월 15일 중화군 삼정리를 찾으시였습니다.

이날은 전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생신날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이 하루만이라도 편히 쉬여주실것을 바라는 온 나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심정도 마다하시고 삼정리에 나가시였습니다.

이른아침 중화군 삼정리에 이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첫

걸음을 떼기 시작한 이곳 농업협동조합들을 돌아보시며 양어장과 과수원자리도 잡아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어 농민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협의회를 가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북받쳐오르는 감격과 흥분으로 가슴들먹이는 농민들을 둘러보시다가 가까이에 앉은 한 조합원에게 물으시였습니다.

《조합이 조직되여 일하는것이 개인농때보다 어떻습니까?》

《참 좋습니다.》

《좋으면 어떤것이 좋습니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다정한 미소를 띄우시고 다시 물으시였습니다.

조합원은 개인농때는 혼자서 하루종일 일을 하고나면 맥이 빠지군 했는데 지금은 여럿이 함께 일을 하니 어떤 일이든지 힘든줄 모르겠다고 말씀올리였습니다.

조합원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농민들에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올해에 여러 지방에 농업협동조합을 몇개씩 조직한것은 경험을 얻어가지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농촌경리를 협동화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당의 농업협동화방침을 받들고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운영해나가고있는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계속하여 새벽길을 걷는 사람이 찬이슬을 먼저 맞듯이 무슨 일이나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모두다 굳게 뭉쳐 농사도 잘하고 조합의 살림살이도 잘 꾸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알곡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남새를 많이 심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사일을 기계화하고 거기서 나오는

로력으로 남새를 많이 심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또한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파수원과 양어장을 만들며 조합원들의 입는 문제와 살림집문제를 풀데 대하여서도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후 삼정리에 당중앙위원회 지도성원들을 파견하여주시고 뜨락또르와 영농기자재들을 보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사과, 복숭아나무모도 보내주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농업협동화의 실태를 알아보시려고 이해 여름과 가을에도 이 조합을 찾아주시였습니다.

11월 어느날이였습니다.

이날 조합원들은 콩마당질을 하고있었습니다.

콩마당질이 한창 벌어지고있는 탈곡장에 이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농민들에게 추운데 수고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뜻밖에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만나뵙게 된 조합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저저마다 대원수님께 정중히 인사를 올리였습니다.

인사를 받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외투를 벗어 옆에 놓으시고 《나도 콩마당질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라고 말씀하시며 가까이에 세워놓은 도리깨를 손에 쥐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만두실것을 말씀올리는 조합원에게 풍년가을마당질인데 한번 해보자고 하시면서 도리깨를 힘있게 내리치시였습니다.

마당질을 마치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땀을 들이시며 앞으로 농업협동조합에서는 탈곡장을 크게 만들고 낟알터는 일을 기계로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삼정리안의 농업협동조합들은 농업협동화의 본보기단위로 되였으며 여기에서 이룩된 경험은 온 나라에 일반화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농업협동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였습니다.

협동조합—근로자들이 생산을 위한 토지와 기계, 설비 같은 수단을 공동으로 가지고 함께 일하기 위하여 자원적으로 조직한 사회주의적인 경리형태.

제 22 과
강재를 1만t만 더 생산하면 나라가 허리를 펼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전쟁으로 파괴되였던 인민경제가 복구되자 5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로 우리 인민을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5개년계획은 우리 나라를 뒤떨어진 농업국가로부터 발전된 공업농업국가로 만들며 인민들의 입고 먹고 쓰고 사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풀것을 예견한 참으로 방대한 계획이였습니다.

그런데 5개년계획에 들어서던 시기 나라안팎의 정세는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여러곳에서 침략전쟁의 불을 질렀으며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책동에 열을 올리였습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또다시 일으키려고 미쳐날뛰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제형편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진속도를 좀 늦추자고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돈을 꾸어오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전진속도를 늦출수 없었으며 남의 돈을 꾸어올수도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하신것처럼 이때에도 인민대중의 힘을 동원하면 5개년계획을 얼마든지 해낼수 있다고 보시였습니다.

5개년계획의 첫해인 1957년도 계획을 수행하자면 9만t의 강재가 있어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45(1956)년 12월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다음해에 8만t의 생산과제외에 5 000t~1만t의 강재를 더 생산할것을 제기하시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우리 나라에는 강재를 생산할수 있는 분괴압연기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강선제강소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6만t밖에 생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로부터 일부 사람들은 8만t도 생산하기 어려운데 9만t의 강재를 어떻게 생산하겠는가고 우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로동자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의논한다면 이 문제도 능히 풀수 있다고 보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강재문제를 풀기 위하여 그해 12월 어느날 강선제강소를 찾으시였습니다.

제강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생산현장을 돌아보신 다음 협의회를 가지시였습니다.

여기에는 제강소 지도일군들과 모범로동자들이 참가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회의참가자들에게 12월전원회의 기본정신과 나라가 처한 어려운 형편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다음해부터 5개년계획수행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1만t의 강재가 더 있어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에서는 강선의 로동계급에게 다음해에 강재를 계획보다 1만톤 더 생산할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동무들이 다음해에 강재를 1만톤만 더 생산하면 나라가 허리를 펼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로동자들은 저마다 자리를 차고 일어섰습니다.

《수령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1만t의 강재를 더 생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신통한 방도를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그만큼 형편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생각에 잠기시여 제강소형편을 보고올린 자료를 보시였습니다.

그러시다가 일군들에게 분괴압연기가 1년에 275일밖에 돌아가지 못하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뜻밖의 물으심에 모두 그 영문을 몰라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회의참가자들에게 분괴압연직장에서 보수기일을 한 15일 더 줄여 75일정도로 할수 있지 않는가, 공무동력을 강화하고 예비부속품생산을 앞세우면 되지 않는가고 말씀하시였습니다.

회의장은 갑자기 흥성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비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것입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일군들과 로동자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압연공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한 젊은 압연공이 일어나서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압연기의 보수기일을 앞당기고 강철생산을 훨씬 높일수 있다고 힘차게 대답올리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강재생산을 늘일수 있는 방도를 밝혀주시고 이날 밤이 퍼그나 깊어서야 제강소를 떠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다녀가신 그날부터 강선땅에서는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습니다.

강선제강소 분괴압연직장의 압연공들은 6만t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9만t이 아니라 12만t의 강편을 생산하는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강선에서 타오른 혁신의 불길은 온 나라에 번져 새로운 기적들을 낳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창조된 강선의 기적은 천리마운동의 불길로 타올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전변이 일어날수 있게 하였습니다.

강재—공업, 건설 등의 재료로 쓰기 위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만든 금속자재. 형강, 강판, 쇠줄감 등이 이에 속한다.

분괴압연기—가열로에서 달구어낸 강철덩이를 가공하여 여러가지 소재를 만드는 기계.

압연—돌아가는 굴대사이에 금속 또는 그밖의 소재를 넣고 눌러서 여러가지 제품을 만드는것.

제 23 과
대 성 할 머 니

우리 인민이 5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이 시기 미제국주의자들은 전쟁도발책동을 강화하였고 경제건설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제기되였습니다.

그리고 혁명대오안에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 시기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시여 그들에게서 힘을 얻으시며 반종파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언제나 잊지 못하신 태성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이때에 있은 일이였습니다.

주체46(1957)년 8월 어느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남포지구를 현지지도하시기 위하여 길을 떠나시였습니다.

이날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되는 날이였습니다.

전쟁을 이기고 처음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하게 되는 온 나라는 끝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흥성거리였습니다.

8월의 맑은 하늘에는 람홍색공화국기가 휘날리고 사람들은 저

마다 기쁨안고 선거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강서군 태성리마을을 지나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곳 선거장 앞마당에서 흥겨운 춤판이 벌어지고있는것을 보시고 차를 멈추게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열광적인 만세의 환호를 올리며 달려오는 인민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면서 천천히 선거장으로 걸음을 옮기시였습니다.

이때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달려나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삼가 큰절을 올리면서 살아있을 때 한번만이라도 수령님을 만나뵈옵는것이 평생소원이였는데 그 소원을 풀었으니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고 말씀을 올리는것이였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널리 알려진 태성할머니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할머니의 두손을 꼭 잡아주시고 함께 걸음을 옮기며 말씀하시였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더 좋은 세월이 오게 됩니다. 오늘보다 더 행복하게 될터이니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좋은 세월에 100살은 더 살아야 합니다.》

그러시고는 할머니의 나이며 살아가는 형편을 일일이 알아보시다가 식량사정은 어떠한가고 물으시였습니다.

할머니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돌봐주시여서 이제는 아무 걱정 없다고 말씀올리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나라에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는 그 뜨거운 심정이 더욱 고마와 다시금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던 할머니는 마침내 걸음을 멈추더니 대원수님의 손을 꼭 부여잡으며 간절하게 말씀드리는것이였습니다.

《수상님! 얼굴이 많이 축간것 같은데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종파놈들이 인민생활이 어찌고어찌고 떠들어도 이제는 다 잘살게 되였으니 일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기지 종파놈들이 이기겠습니까? 념려마십시오. 우리는 수상님을 지지합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할머니의 진정어린 이야기에서 큰 감명을 받으시였습니다.

그 소박한 말속에 바로 그 어떤 어려움속에서도 변치 않는 우리 인민의 목소리가 울리고있었던것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때 이 할머니의 말에서 새로운 용기를 얻으시였으며 종파분자들을 철저히 쳐부셔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시였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신 행복한 인민이였고 대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미더운 인민이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종파분자들을 쳐부시는 한편 5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였습니다.

제 24 과
어제날의 기업가에게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전후에 농민들을 농업협동조합에 묶어세우는것과 함께 수공업자들과 상공업자들로도 협동조합을 조직하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수공업자들과 상공업자들을 사회주의근로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습니다.

주체48(1959)년 6월 어느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원산철공생산협동조합을 찾으시였습니다.

조합원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며 구내로 들어가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출선작업이 한창인 소형용광로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시였습니다.

소형용광로에서는 시뻘건 쇠물이 흘러나오고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한참동안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작업반장에게 하루에 쇠물을 얼마나 뽑는가를 알아보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체로 소형용광로를 건설하여 철을 생산해서 쓰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며 작업반장에게 무연탄으로 쇠돌을 녹이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멀리 떨어져있는 분공장 공무동력반에까지 찾아가시여 조합자체로 만든 공작기계를 몸소 돌려보시며 앞으로 조합살림살이를 더 잘 꾸려나가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날 저녁 지난날의 기업가들을 만나주시는 자리에서 또다시 작업반장을 몸가까이 부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에게 월수입과 살림살이형편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과거 개인기업을 할 때보다 모두 힘을 합쳐 일하니 어떤가고 다정히 물으시였습니다.

그는 지난날 개인기업을 하면서도 동생 하나 공부시키지 못하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넷이나 되는 자식들을 모두 학교에 보내고있으며 조합에서는 자신을 최고로 대우해주고 좋은 집까지 마련해주어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살고있다고 말씀올리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시고 매우 기뻐하시면서 협동조합을 더욱 발전시켜 조합원들의 생활을 높여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합원들을 둘러보시고나서 말씀을 이으시였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을 내고 기계가 있는 사람은 기계를 내고 재간이 있는 사람은 재간을 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여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모두 힘을 합쳐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생산을 많이 하면 자기자신도 잘살수 있고 다른 사람도 잘살게 할수 있으며 나라도 부강하게 만들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합원들은 자기들에게 사회주의건설자의 영예를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계속하여 우리에게는 다같이 잘살아나갈 의무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을 반대하는것은 리기주의라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이 말씀은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리기주의 사상이 차있던 조합원들의 마음을 쿡 찔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계속하여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일을 잘하며 당정책을 받들고 사회주의를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은 지난날에 무슨 일을 했든 관계없이 기사로도 될수 있고 로력영웅으로도 될수 있다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믿음어린 말씀을 받은 작업반장과 조합원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에 의하여 어제날의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은 사회주의적근로자로 개조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다녀가신 후 작업반장을 비롯한 상공업자들은 대원수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보람찬 삶을 누려나갔습니다.

전국지방산업부문 및 생산협동조합열성자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모시고 주석단에까지 앉았던 작업반장은 몇달동안 조합구내에서 침식을 해가며 실험에 열중하여 마침내 무연탄으로 쇠돌을 녹이는데 성공하고야말았습니다.

이날 밤 그는 옷장안에 깊이 간수하였던 30만원의 출자금증명서를 조합의 한 일군에게 내놓으며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따라 끝까지 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후 그 작업반장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사랑속에 조선로동당의 당원으로, 조합관리위원장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까지 되였습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에 의하여 어제날의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이 사회주의근로자로 되였습니다.

제 25 과
청산리에서의 15일

농업협동화가 이루어져 우리 나라의 농촌들에는 큰 살림이 꾸려졌습니다. 일군들은 큰 살림을 꾸려놓기는 하였으나 어떻게 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신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이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일하는 방법을 밝혀주시기 위하여 주체49(1960)년 2월초부터 15일동안에 걸쳐 친히 청산리와 강서군을 현지지도하시였습니다.

청산리는 그때 우리 나라 그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농촌마을이였습니다.

함박눈이 내리는 이른아침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숫눈길을 밟으시며 조합원들의 가정을 찾으시여 살림살이형편을 자세히 알아보시였습니다.

이처럼 이른아침부터 조합원들의 살림집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곧바로 리당사무실로 가시여 협의회를 가지시였습니다.

리당사무실에는 리의 간부들과 핵심당원들이 모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며칠전에 이곳으로 보내시였던 당중앙위원회 일군들로부터 리안의 형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였습

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의 보고와 이른아침에 들리시였던 집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리당사업에서 나타나고있던 결함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시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그치지 않고 리일군들과 핵심당원들의 의견을 들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구나 흉금을 털어놓고 말할수 있도록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간부들과 핵심당원들의 사업과 생활, 지식수준 그리고 자녀교양에 대해서도 알아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관리위원장, 리당위원장과도 담화를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날 밤을 청산리의 수수한 농촌집에서 보내시였는데 겨울의 긴긴밤이 지새도록 방에서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리의 형편을 더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기 위하여 일요일에도 당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였습니다.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오시면서도 일요일의 휴식조차 농민들을 위하여 뒤로 미루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앞에서 일군들은 뜨거운것을 삼키였습니다.

이날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게 된 당원들은 감격을 금치 못해하며 대원수님을 조금이라도 편히 모시려고 방석을 깔아드리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방석을 가볍게 밀어놓으시고 여기가 좋다고 하시면서 맨바닥에 허물없이 앉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먼저 한 작업반장의 사업과 가정형편을 료해하신 다음 원쑤들에게 남편을 잃은 한 녀성당원과 이야기를 나누시였습니다.

청산리혁명사적관

그리고 몸이 약한 녀맹일군의 얼굴에 비낀 병색까지 헤아려보시고 몸을 잘 돌보며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도록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청산리와 함께 강서군의 사업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청산리와 강서군의 형편을 일일이 알아보시는 과정에 청산리와 강서군에는 성과도 많지만 결함도 적지 않다는것을 아시게 되였습니다.

특히 농업협동조합의 사업에는 많은 결함이 있었습니다.

조합에서는 농사에 힘을 집중할 대신 부차적인데 로력을 분산시키고 똑똑한 계획도 없이 주먹치기로 농사를 하고 사회주의분배원칙도 옳게 지키지 않고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농촌경리부문뿐아니라 다른 부문에서도 나타나고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중요한 원인은 우가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지 못한데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청산리와 강서군에 대한 현

지지도를 통하여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새로운 사업방법을 창조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청산리방법의 기본은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알아보고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세우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나옴으로써 사람들의 일하는 방법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는 더 큰 성과가 이룩되게 되였습니다.

제 26 과
온 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1961년부터 제1차 7개년계획수행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제1차 7개년계획은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공업국가로 만들며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더 높이기 위한 계획이였습니다.

그런데 7개년계획에 들어서던 때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였습니다.

정세는 나라를 지켜싸울 힘을 튼튼히 키우며 원쑤들의 어떠한 침공도 물리칠수 있는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출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러한 정세의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주체51(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방침을 내놓

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 당은 이미 1962년에 소집되였던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기하고 경제건설을 개편하는 한편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킨다는것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어느 하나도 약화시키지 않고 다같이 튼튼히 틀어쥐고 발전시켜나간다는것을 말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전원회의가 있은 다음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키우는데 큰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52(1963)년 2월 몸소 전연에 있는 대덕산초소의 인민군부대를 찾으시였습니다.

부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전투준비상태를 일일이 알아보시였습니다.

정치상학을 하는 군인들을 만나 담화하시고 진지들도 돌아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부대의 싸움준비가 잘되였다고 치하하시면서 모든 군인들이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전투훈련을 더 잘하여 전투준비를 완성하여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날 군인 한사람이 적 100놈을 감당할수 있도록 그들을 잘 키워야 한다고 하시며 《일당백》의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일당백》의 전투적구호는 인민군군인들의 심장을 한없이 높뛰게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후에도 친히 수많은 부대들을 현지

지도하시였습니다.

때로는 험한 비탈길을 오르내리시며 구분대의 훈련도 지도하시고 때로는 군함에 오르시여 파도사나운 바다를 달리시며 해병들의 훈련도 지도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또한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온 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꾸리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로농적위대를 튼튼히 꾸리는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53(1964)년 1월 로농적위대지도일군련석회의를 소집하시고 로농적위대를 강화하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로농적위대만이 아니라 전체 인민이 군사를 배우고 군사훈련에 적극 참가하게 하시였습니다.

이와 함께 후방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대들을 잘 꾸리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며 전시에 필요한 물자예비를 마련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누구나 다 총을 쏠수 있게 되였으며 온 나라가 철벽의 요새로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기 위한 투쟁에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심으로써 우리 나라는 원쑤들의 그 어떤 침략도 쳐물리칠수 있게 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습니다.

경제건설—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발전시키며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마련해나가는것.

국방건설—외래침략자들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기 위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며 군수공업을 발전시키는 등의 일들을 통털어 이르는 말.

제 27 과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 주시려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여기시고 그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돌려주시였습니다.

주체50(1961)년 4월 어느날 저녁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라지오에서 울려나오는 어린이들의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였습니다.

라지오에서는 《…높고 아름다운 궁전을 수상님이 지어주신다네…》라는 어린이들의 노래소리가 울려나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노래소리를 들으시며 학생소년궁전을 빨리 지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였습니다.

학생소년궁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전쟁이 끝나자 먼저 짓게 하신 건설대상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나라사정이 아직 어려웠으나 어린이들을 위하여 아끼고 아끼시던 수도 한복판의 장대재언덕우에 몸소 터전까지 잡아주시였던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날 밤 평양시인민위원회와 시건설위원회 책임일군들을 부르시고 학생소년궁전건설을 다그칠 대책을 세워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방송에서 나오는 어린이들의 노래를 들으며 생각하니 우리가 큰 빚을 진것 같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학생소년궁전건설에서 걸리고있는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건설을 빨리 다그칠 대책을 세워주시고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후대들을 위해서, 꽃봉오리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잘 지어줍시다.》

정녕 어린이들을 위한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학생소년궁전설계를 할 때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설계일군들에게 궁전을 제일 크고 훌륭하게 설계하도록 과업을 주시였습니다.

그러나 설계일군들은 미처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높은 뜻을 헤아릴수 없었습니다.

일군들은 나라의 사정이 어려운데 너무 크게 설계하지 않았는가 하여 마음속으로 근심하며 설계도면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올리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설계도면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동무들, 수고했소. 그런데 너무 작아서 안됐소. … 이 설계도면의 다섯배는 돼야 하겠소. 이름부터 궁전이 아니요. 장대재등에 그득 들어차게 우리 나라의 왕인 어린이들이 살 궁전답게 크고 화려하게 다시 설계하시오.》

그때 평양에서 제일 큰 건물로 될 학생소년궁전건설은 이렇게 시작되였습니다.

라지오에서 나오는 어린이들의 노래를 들으시고 학생소년궁전건설을 다그칠 대책을 세워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해 10월 몸소 건설장을 찾아주시였습니다.

건설장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모든것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해주자고 하시며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끊임없는 보살피심속에서 주체52(1963)년 9월에 평양학생소년궁전이 드디여 완공되였습니다.

궁전에는 단번에 1만명이상의 학생소년들이 희망에 따라 과학, 문학, 예술, 체육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과외활동을 할수 있는 200여개의 연구실과 소조실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많은 학생

들이 들어가 재능을 꽃피울수 있는 극장과 체육관도 갖추어져있었습니다.

9월 30일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몸소 평양학생소년궁전 개관식에 나오시여 웅장하게 일떠선 궁전의 안팎을 돌아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평양학생소년궁전 연건평이 5만㎡이면 기계공장 몇개 건평에 맞먹는 대단히 큰 건물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못 살았지만 우리 학생소년들은 잘 키워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궁전의 운영방향과 방법에 대하여 하나하나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후 개성과 송림을 비롯하여 여러곳에 어린이들을 위한 학생소년궁전을 지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송도원과 석암, 룡악산을 비롯한 이름난 곳에 훌륭한 소년단야영소를 꾸려주시였습니다.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 먼저 주시는것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드팀없이 견지하신 원칙이였습니다.

참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며 선참으로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품속에서 우리 나라 새 세대들은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났습니다.

제 28 과
한 협동농장문제를 놓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농업협동화가 끝난 다음 농민들의 생활을 추켜세우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며 농촌의 형편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신데 기초하여 농업생산을 더욱

늘이고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빨리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들을 세우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52(1963)년 11월 어느날 평안남도 대동군 덕촌협동농장을 찾으시였습니다.

어느 한 작업반의 포전에 차를 세우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작업하고있는 한 농장원을 부르시여 어느 작업반인가고 다정하게 물으시였습니다.

농장원은 덕촌협동농장 6작업반이라고 대답올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길 건너편 부락을 바라보시였습니다.

거기에는 30여호의 집들이 있었는데 전쟁이 끝난 뒤 급히 지은데다가 손질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집들이 허줄하였습니다.

농민들의 생활이 빨리 향상되지 못하고있는것을 아시게 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안색을 흐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걱정하시는것을 알게 된 농장원은 자기네 농장은 괜찮게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건너편 길로 소학교 학생들이 오고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이 외투를 입지 못하여 춥겠다고 근심어린 음성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는데 외투를 입은 아이들이 눈에 띄지 않아 걱정되여 하신 말씀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협동농장의 일군들을 부르시여 농장의 형편과 살림살이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아보시였습니다.

그들은 협동농장을 무은 후 해마다 풍년이 들어 농장원들의 생활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나 입는 문제, 살림집문제 등이 걸려있다는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2~3일후에 이 협동농장의 생활문제를 토의해보자고 하시며 차를 보내겠으니 세포위원장들과 작업반장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이틀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차를 타고 평양에 도착한 그들은 그만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부장전원회의에 참가하게 되였기때문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부장전원회의를 여시고 덕촌협동농장의 생활문제를 토의하시였습니다.

회의에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친히 알아보신 덕촌마을 농민들의 생활형편에 대하여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몇해동안에 농장에서 논도 많이 풀고 해마다 농사를 괜찮게 지었으나 농장원들의 생활수준이 높지 못하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계속하시여 며칠전에 그곳에 가보았는데 어린이들이 내의는 다 입었으나 외투가 없어서 추워하고있었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추운 겨울에 어린것들에게 외투를 해입히지 못하는 부모들의 마음이야 얼마나 아프겠는가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잠시후 농민들의 생활을 로동자들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촌을 돕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오늘 공업이 발전한 조건에서 공업이 농업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도시가 농촌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협동농장들이 국가에서 꾸어다쓴 돈을 면제해주고 농촌건설도 국가돈으로 해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눅은 값으로 작업복을 공급해주고 2~3년안에 농업현물세제를 없애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이때에야 비로소 회의참가자들은 덕촌협동농장의 사업을 당중앙위원회 부장전원회의에서 토의해주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높은 뜻을 알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 얼마후《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였습니다.

이리하여 공업이 농업을 적극 지원하고 도시가 농촌을 도와주며 당과 국가가 농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봐주게 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 농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돌려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테제—어떤 사회정치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방도 등을 함축하여 서술한 강령.

제 29 과
저택안의 시험포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저택정원에서 시험포전을 가꾸시며 갖가지 농작물과 기름나무, 과일나무들의 재배방법을 연구하시였습니다.

어떤 작물에 대해서는 5년 또는 10여년의 세월을 두고 시험을 거듭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해를 두고 시험포전에서 연구하신 재배방법들을 온 나라에 보급하시여 농사에서 새로운 성과를 낳게 하시였습니다.

주체52(1963)년 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정원에 새로 모판을 만드시고 벼종자를 뿌리시였습니다. 이 벼종자는 그 전해 가을 어느 한 지방을 현지지도하시다가 특별히 이삭이 크고 알이 굵은것을 보시고 가져오신것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른새벽에도 점심시간에도 시험포전에 나가시여 손수 물도 대시고 김도 매주시면서 벼가 자라는 상태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였습니다.

이렇게 여러해동안 재배시험을 거듭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마침내 벼모는 몇잎이 되였을 때 모내기를 하는것이 좋으며 한평에 몇포기씩 심는것이 좋은가, 논물은 어느 정도로 대며 밑거름과 덧거름은 어느때 어떤것을 얼마만큼 주는것이 좋은가를 하나하나 알아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가꾸신 벼종자를 다시 평양시 주변의 몇몇 협동농장들에 보내시여 보다 큰 규모로 재배시험을 계속하게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농장원들에게 모붓기와 모관리, 덧거름주기와 물대는 방법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몹시 무덥던 주체53(1964)년 8월 어느날 아침 일찌기 삼석구역 장수원협동농장 포전을 찾으시였습니다.

이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농장원들에게 새로운 벼농사방법을 가르쳐주시다가 《자, 내 차에 다 타시오. 우리 집에 가서 직접 봅시다.》라고 하시며 그들을 차에 태워 댁으로 데려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모시고 저택정원을 돌아보던 농장원들은 한곳에 이르러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자그마한 논밭들이 규모있게 정리되여있었는데 어느 포전의 곡식을 보아도 그쯘하게 잘되여있었습니다.

농장원들은 나라의 농사문제를 푸시기 위하여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쓰고계시는가 하는것을 가슴뜨겁게 느끼였습니다.

그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농사의 리치를 그 누구보다 환히 알고계시며 모든 농사일을 그토록 옳바로 지도하시는 까닭을 비로소 알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논벼를 먼저 보자고 하시면서 농장원들을 논머리로 데리고가시였습니다.

《자, 보시오. 이것은 서로 다른 벼종자들입니다. 서로 다른 방법으로 모를 심고 서로 다른 방법으로 비료를 주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한이랑한이랑 짚으시며 벼종자들의 특성과 그 재배방법을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농장원들을 가르쳐주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배울것이 있으면 배워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한 일군에게 농장원들이 돌아갈 때 꼭 차에 태워보내라고 거듭 당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에 의하여 그 협동농장에서는 대원수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새로운 벼종자를 가지고 꼭같은 조건에서 농사지어 다른 종자보다 훨씬 더 많은 소출을 내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끊임없는 시험과 연구과정을 거쳐 우리 나라 조건에 맞는 새로운 농사방법을 하나하나 완성해나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옳바른 지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이 땅우에는 주체농법이 꽃펴나 과학농사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습니다.

시험포전—새로운 종자와 방법으로 농사를 시험적으로 짓는 논밭.

제 30 과
또다시 미제놈들을 무릎꿇게 하시여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날로 심해지는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도록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1968년 1월이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를 우리 나라 바다에 깊이 침입시켜 정탐행위를 감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정상적인 순찰임무를 수행하던 조선인민군 해군은 이 간

첩선을 즉시에 붙잡고 거기에 탔던 미국놈 80여명을 사로잡았습니다. 최신설비를 갖춘 《푸에블로》호는 여러 나라의 바다에 기여들어 간첩행위를 하던 미제의 무장간첩선이였습니다.

미제의 무장간첩선이 조선인민군 해군에게 붙잡혔다는 소식이 퍼지자 세계는 들끓기 시작하였습니다.

수많은 나라 통신, 신문, 방송들이 앞을 다투어 이 소식을 전하였으며 전세계가 조선인민의 용감성에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습니다.

조선인민군 해군에게 나포된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가 붙잡히자 바빠맞은 미제놈들은《푸에블로》호가 공해상에 있었다고 거짓말을 줴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무장간첩선과 배에 탔던 인원들을 돌려보내라고 하면서 우리 나라에 압력을 가하였습니다.

미제는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화국북반부를 들이치겠다고 위협해나섰습니다.

한편 미제는 제놈들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것을 두려워하면서 수많은 함선들을 조선동해로 내몰았으며 일본에 있는 비행기들을 급히 남조선에 이동시켰습니다.

놈들은 또한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 일본《자위대》에 비상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는 어느 순간에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였습니다.

사태가 어떻게 번져갈것인가, 미제의 미친듯 한 전쟁소동에 크지 않은 사회주의나라 조선이 어떻게 나올것인가 하고 세계는 숨을 죽이고 조선을 지켜보고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2월 8일에 하신 연설에서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에 맞설 우리 당과 인민의 단호한 립장을 밝히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계속 무력을 동원하여 위협공갈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들은 이로부터 얻을것이란 아무것도 없을것입니다. 있다면 오직 시체와 죽음뿐일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입니다.》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이것은 미제침략자들의 머리우에 떨어진 무서운 불벼락이였습니다.

미제는 너무도 된벼락을 맞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온 나라의 군대와 인민이 미제의 전쟁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게 하시였습니다.

한편 미제놈들을 심판장에 끌어내여 사죄문을 기어이 받아내도록 하시였습니다.

1년간 별짓을 다하며 발악하던 놈들은 더는 어쩔수 없게 되자 마침내 심판장으로 끌려나오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미제는 심판장에 끌려나와서도 제놈들이 우리 나라에 침입하였다는것을 인정하지 않고 간첩선과 그 선원들을 보내달라고 생억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간첩배에 탔던 놈들은 제놈들이 우리 나라의 바다에 기여들어 간첩행위를 하였다는것을 솔직히 고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미제의 죄행은 온 세상에 더욱 낱낱이 드러나게 되였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달은 미제침략자들은 저들의 죄를 인정하고 다시는 공화국을 침범하지 않겠다는것을 다짐하면서 사죄문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인민은 미제와의 대결에서 또다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세계인민들은 다시한번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고 놈들을 무릎꿇게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끝없는 존경심을 가지고 더 높이 우러르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중학교 제2학년용)

제2판

집 필 부교수 장리준

심 사 심의위원회

편 집 계순희 콤퓨터편성 전명희

장 정 류명심 교 정 오혜란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교육도서인쇄공장

1판발행 주체94(2005)년 4월 30일

2판인쇄 주체101(2012)년 3월 19일 2판발행 주체101(2012)년 3월 29일

교－12－보－548 값 원